

† 찬미예수님

이번 주일은 연중 제15주일이자 농민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주교회의 1995년 추계 정기 총회의 결정에 따라 해마다 7월 셋째 주일을 농민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 교회는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도록 이끕니다. 각 교구에서는 농민 주일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마련하여 농업과 농민의 소중함과 창조 질서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들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성실히 일하게 하십니다. 농부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으로 하느님 나라의 복된 희망을 보여주는 하모니가 되길 기도합니다.

=====

## 2017년 7월 16일 연중 제15주일 (농민 주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1-23

1 그날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2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썩은 곧 돌아났지만,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7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0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1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12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15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18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여라. 19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20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21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22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23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 2017년 7월 둘째주 공지입니다.

오늘(7/12) 영명축일을 맞이한 이미연 베로니카 자매님, 축하합니다!!

## <지난행사>

### 성시간 (7/6 목)

지난 성시간에는 여러명의 하모니들이 참석해 성체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주님안에 함께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매월 첫 목요일 저녁 성시간에 참석해 성스러운 경험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 심 데레사 자매님 저녁식사 초대 (7/8 토)

지난 토요일 데레사 자매님 저녁초대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모니란 글씨가 적힌 감동적인 케익과 더불어 맛있는 음식과 풍요로운 대화/나눔이 어우러진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주임 신부님과 기도회 어른들도 함께 참석하시어 다같이 대화 나누며 즐겁고 멋진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대해 주신 심 데레사 자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 주보나눔 봉사(7/9)

류은정 호임 골롬바 자매님, 감사합니다!

### 사랑방 전기세 (7/9)

지난 회합에서 동의한대로, 신부님과 성당의 배려아래 사용하고 있는 사랑방의 전기세 일부를 보태 드렸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매월 초 \$20을 지속적으로 성당에 드릴 예정입니다.

=====

### 주보나눔 봉사(7/16 주일)

금채은 소피아, 최보나 가브리엘라 자매님, 감사합니다!

### 기증도서 정리/대여

허은희 마리아 성모회 회장님께서 감사히 기증해주신 다수의 도서가 현재 미정리 상태로 사랑방에 있습니다. 조만간 신부님께서 청년들에게 적합한 도서를 분류해 주실 예정이며 분류된 도서는 일련번호로 입력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사랑방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혹시 분류를 마치기 전에 도서를 대여하고 싶은 분들은 따로 준비된 '사랑방 도서 대여 임시 명단'에 본인의 이름과 도서명 등을 기재하고 대여하시기 바랍니다.

### 관심 영적도서 및 자료 구입 - 희망명단 링크

교우분들의 건기행사 후원금으로 마련될 우리들의 영적성장을 위한 교육자료 선정에 님들의 의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입된 자료는 사랑방에 비치되어 함께 관람하고 대여하는 등 유익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영적 도서, 영상물 등 자료에 대한 의견, 또는 구체적인 도서/자료명 등을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거나 다음의 링크로 올려주세요.

영적교육자료 희망명단: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5BOqoTfNLAVhxMs\\_avAlc7wrs\\_yYBI8-pLCPIchh74/edit?usp=sharing](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5BOqoTfNLAVhxMs_avAlc7wrs_yYBI8-pLCPIchh74/edit?usp=sharing)

위의 명단에 지금껏 여러 하모니들이 희망 자료물을 올려 주었습니다. 7월말경까지 요청된 자료를 주임 신부님과의 상의를 거쳐 구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필요하다 생각되고 관심있는 자료를 찾아 유익한 교육 자료를 선택해 배움과 나눔의 공간을 꾸며갈 수 있도록 모든 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바랍니다.

### 사랑방 소식 - 냉장고

사랑방에 오래된 고장난 냉장고를 대체할 새 냉장고를 이번주에 구입합니다. 회합시 동의한대로 우리안에서 개인적으로 조금씩 보태어 냉장고 구입을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면 개인당 부담액이 적어지겠죠~ 사랑방을 우리집같은, 우리의 공간으로 소중히 아끼는 모든 하모니들의 따뜻한 후원금으로 앞으로 계속 잘 사용할 냉장고 구입에 정성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예상 구입 비용은 지난 회합때 말씀 드렸고, 정확한 비용은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냉장고에서 꺼낸 따뜻한 음료에 종지부를 찍고, 시원~하고 신선한 음료/음식을 곧 함께 다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북가주 성령대회 (8/12 토)>

북가주 6개 성당이 함께하는 성령대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아, 최 주임 신부님의 지도아래 오클랜드 성당에서 개최됩니다. 말씀, 기쁨, 축복이 가득한 연중행사 성령대회는 올해 특별히 우리 성당에서 개최되니 많은 하모니가 함께 참여/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일시: 8월 12일(토) 오전 8:30 - 오후 8:30

장소: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주제: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에제 37,5)

강사: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참가비: \$25.00(점심/저녁 제공) - 당일, 또는 미리 친교실에서 신청

## 1. 북가주 성령대회 감사봉헌

하모니와 뜨락회가 함께 성령대회를 후원하는 감사 봉헌을 합니다.

각 단체에서 \$100씩 보태어 책자에 전면으로 봉헌되며, 성경말씀(데살로니카 1서, 5-16-5,18), 축하의 글, 그리고 청년회 소개가 함께 올려집니다. 감사 봉헌은 책자로 만들어질 예정이며 책자는 파견 미사때 제대에 올려져 예물로 봉헌됩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행사 후원과 더불어 그간 청년회에 베풀어주신 배려에 대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레 봉헌 하겠습니다.

## 2. 청년회 봉사 (8/12토)

우리 공동체의 큰 행사에 청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 봉사할 계획입니다.

성령대회에 참가하는 님들은 미리, 또는 당일날 신청하시고 (참가비\$25) 일정 중간중간에 봉사 하시면 됩니다. 대회 참가는 못 하지만 봉사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한 시간대에 분야별로 나눠서 봉사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신부님 식사 전담 및 안내 등의 봉사를 할 예정이니 8/12 토요일날을 봉사의 날로 짬! 해주세요~

## 하계 수련회 일정 (9/15(금)-9/17(일))

하계 수련회 날짜가 9/15(금)-9/17(일)로 확정 되었습니다. 참석 여부를 7월말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하모니 회비

회합시 의견을 반영하여 하모니 회비를 올해 후반기인 7월부터 연 2회, 6개월에 \$20에서 **\$40볼로 인상**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회비는 감사 헌금/봉헌 및 하모니 이름으로 전달되는 선물, 또한 기타 하모니 행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단, **새로오신 분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드리며 이 기간 동안의 회비 납부는 본인의 뜻에 맡깁니다.

##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3박4일) - 선착순 30명

최 주임 신부님께서 선착순 약 30명의 교우분들과 함께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일정, 첨부파일 참고)

- 순례기간: 9월 3일 (주일)-9월 6일 (수)

- 비용: \$1,350 /1인; 항공권, 순례비용, 숙식 포함

1531년 최초 성모님 발현지인 멕시코 시티의 과달루페 성지 순례에 신부님과 교우분들과 동행할 수 있는 뜻깊고 좋은 기회입니다.

선착순 30명 신청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속히 선금과 함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 성서모임 노트정리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성서모임 중 하나라도 마친 분들중에 노트검사/싸인을 받지 못한 님들은 노트를 정리해 7월 30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 (8월말/9월초 시작)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 시작이 8월말/9월초로 연기되면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것의 기본이되는 말씀을 함께 접하고 나누며 배울 수 있는 감사한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학교 교사모집

유치반, 초급반 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정인경 가브리엘라 자매님 ([ikkim324@yahoo.com](mailto:ikkim324@yahoo.com))께 문의 바랍니다.

## 영명축일 - 축하합니다!

7/12: 이미연 베로니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이름표:** 이름은 우리의 존재요, 이름을 익히는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심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당에 있을때에는 미사 전후를 비롯 항상 이름표를 부착해 주세요. 이름표 분실시에는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